

대구·경북지역의 북한이탈 초등학생의 문화변용과 학교생활 만족도*

박 순 호**

Analysis of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Acculturation of Elementary Students of North Korean Refugees in Daegu and Gyeongbuk Region*

Park, Soon Ho**

요약 : 이 논문은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초등학생의 문화변용과 학교생활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초등학생의 속성은 전국 혹은 수도권과는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문화변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변용에 있어서는 통합형보다는 동화형의 비중이 약간 크지만 한국 문화를 수용하는데 소극적인 분리형과 주변화형의 비율이 42%를 차지하여 국내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고 학교생활에 익숙할수록 남한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북한에서 태어난 학생의 경우는 남한문화를 거부하려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만족도는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며, 영역별로는 교사와의 관계와 학교환경의 만족도는 높은 반면에 학습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았다. 또한 학교생활만족도와 문화변용 유형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새로운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유형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결론적으로 탈북한 국내이주 청소년에 대한 기존의 획일적이고 단기적인 교육위주의 지원정책에서 탈피하여, 문화변용차원의 계층별·속성별 수요를 반영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탈북 국내이주 초등학생, 문화변용, 학교생활의 만족도, 대구·경북지역

Abstract :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acculturation of elementary students of north Korean refugees in Daegu and Gyeongbuk region.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elementary students in Daegu and Gyeongbuk were different from in capital territory or other parts of Korea. The acculturation of students living in Daegu and Gyeongbuk was distinctive. The proportion of assimilation was slightly higher than that of integration. However, 42 percent of students belonging to separation and marginalization passively accepted south Korean culture, so that they would have a difficult time in adjusting to new culture. Students getting older and being used to school life strongly inclined to accept south Korean culture; while, students born in north Korea tended to resist acceptance of south Korean culture. Most students were satisfied with school life. The satisfaction level was high in the relationship with teachers and school environment; while, the satisfaction level in learning activity was relatively low.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satisfaction and types of acculturation, students actively accepting new culture were relatively highly satisfied with their school life. A standardized short-term education oriented program for north Korean adolescents refugees living in south Korea should be shifted into the long-term support policy reflected in class and attribute in terms of acculturation.

Key Words : north Korean elementary students refugees living in south Korea, acculturation, school life satisfaction, Daegu and Gyeongbuk region

1. 머리말

최근 북한이탈주민들의 국내이주는 과거 개별이주에서 이미 남한에 정착한 가족과 친인척과 결합을 위해 이주하는 연쇄이주(chain migration)로 변화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그 결과 이미 국내

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정보와 경제적 도움으로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가족단위 입국과 다양한 연령층의 이주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박순호, 2014). 따라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북한이탈 국내이주자 중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비율은 1995년의 9.8%에서 2014

* 본 논문은 2013년도 대구교육대학교 연구교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대구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hpark@dnue.ac.kr)

년 16.4%(통일부, 1996, 2015)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2014년 현재 초·중등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총 학생은 2,466명으로, 2007년의 447명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들의 각급학교별 재학생의 비율을 보면 초등학교가 45.7%(1,128명), 중·고등학교가 42.8%(1,055명)을 차지하며, 그 외 대안학교 재학생이 11.5%(283명)로 초등학교의 비율이 가장 높다(교육부, 2015). 이와 같이 초등학교의 비중이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학교 및 사회생활에 있어서 적응에 관한 연구와 이들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 왜냐하면 이들은 한국문화 및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의 초기단계에 속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응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들의 부적응은 본격적으로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사춘기 이후의 청소년의 부적응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북한이탈 국내이주 청소년의 증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히 이들의 교육적인 관점에서의 연구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들 연구를 크게 연구대상, 연구주제 그리고 연구방법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초·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을 포함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남한 사회로의 이주 후 문화 및 학교적응에 대하여 주로 심층인터뷰와 참여관찰방법을 이용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강희석, 2007; 김은경, 2000; 이선화, 2006; 정애리·유순화, 2012; 박석동, 2014). 그 이유로는 북한이탈 국내이주 청소년들은 기존의 그들 문화와 상이한 남한 문화와의 충돌 속에서 사회 및 학교생활에 있어서 많은 사회적, 심리적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고 남한 사회의 주류 문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할 경우 향후 ‘사회부적응’ 계층의 확대재생산의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북한이탈 국내이주 청소년과 관련된 공식적으로 공개된 자료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부모와 보호자들도 그들의 신분의 노출을 꺼리고, 더욱이 이들은 연구대상이 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매우 크다(김종국, 2007). 또한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표본 집단의 추출을 위한 이들 모집단의 지역별·속성별 자료에 대한 접근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주로 심층인터뷰와 참여관찰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물론 학교적응에 관하여 심층인터뷰나 참여관찰법이 아닌 설문조사를 이용한 연구(김종국, 2007; 정병호 등, 2007; 박윤숙·윤인지, 2007; 한만길 등, 2009; 홍순혜·이숙영, 2008; 김미숙, 2004)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 지자체 교육청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 등 교육관련 공공기관의 정책연구이거나 이들 연구들의 자료를 2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대상에 있어서는 2014년 4월 현재, 북한이탈 국내 거주 초등학교생은 1,128명으로, 전체 북한이탈 국내거주자의 4.3%, 대학교를 제외한 전체 학생의 대략 절반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소수(김미숙, 2004; 원자혜, 2012; 김주석, 2005; 박석동, 2014; 박순호, 2014)에 지나지 않고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포함한 청소년 일반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연구(강희석, 2007; 홍순혜·이숙영, 2008)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근거하여 청소년을 9세에서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연령층에 대한 각종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은 점과 면접조사를 비롯한 자료구득이 매우 어려운 점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 또한 북한이탈 국내이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대상지역은 전국²⁾ 혹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이며, 비수도권 거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박순호의 연구(2014)가 유일하다³⁾.

다음은 북한이탈 국내이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 및 학교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김미숙(2004)은 수도권 지역의 5~6학년 초등학교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력평가 결과, 심층면접, 참여관찰을 통하여 이들의 학교 적응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박석동(2014)은 수도권의 북한이탈 국내이주 초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참여관찰과 교사들의 면담을 통하여 사회화 과정에 있어서의 태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⁴⁾.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학교생활의 부적응 실태에 초점을 둔 연구(전영주, 2005;

이기영, 1999; 장창호, 2001)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북한이탈 국내이주 청소년들은 남북한 교육수준의 격차로 인하여 학습참여 동기 부족과 기초학력의 부족, 자기보다 3~4살 적은 학생들과 같은 학년에 속하기 때문에 교우관계와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각급학교 중도탈락률은 2008년 10.8%에서 2010년 4.9%와 2014년 2.5%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 초·중·고 학생들의 중도탈락률(2014년 0.9%)보다는 여전히 높다(교육부, 2015). 반면에 박순호(2014)는 비수도권의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초등학교생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일상생활 만족도를 분석하였다⁵⁾.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북한이탈 국내이주 청소년들이 사회 및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탈북과정에서 외상과 공포 및 두려움과 같은 육체적, 정신적 충격도 그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대부분 북한문화와 남한문화의 상이성 때문에 겪어야 하는 문화변용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김윤나, 2008; 김종국, 2007; 홍순혜·이숙영, 2008). 문화변용(acculturation)이란 상이한 문화배경을 지닌 집단이 새로 이주한 사회의 새로운 문화와 지속적으로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발생하는 변화현상(Redfield *et al.*, 1936; 박정의·성지연, 2012a)으로 정의된다. 즉 문화변용이 북한이탈 국내이주자들의 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이들이 기존문화와 새로운 문화 간의 충돌 속에서 이주자들이 두 문화를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정체감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Berry, 1997; Berry *et al.*, 2002).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에서 소외되었던 비수도권의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초등학교생⁶⁾을 대상으로 이들의 문화변용과 학교생활 만족도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과 분석대상자의 속성

1) 연구방법

본 연구에 사용한 주된 자료는 2014년 4월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초등학교생⁷⁾ 전체 79명(대구 36명과 경북 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이다. 설문조사는 2014년 3월과 4월에 걸쳐 북한이탈 초등학교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와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5월에서 8월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의 72%에 해당하는 57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⁸⁾. 그러나 응답내용이 불충분한 7부를 제외한 50부를 실제 분석에 이용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크게 북한이탈 국내이주 초등학교생의 속성⁹⁾, 문화변용 유형 그리고 학교생활 만족도로 구성하였다. 문화변용 유형을 분석하기 위한 문항은 Ahn(1999)이 개발한 KAEIS(Korean-American Ethnic Identity Scale)를 번역하여 사용한 금명자 등(2004)¹⁰⁾의 설문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¹¹⁾. 한편 이들의 학교생활만족도에 관한 문항은 1990년 미국 Missouri 주의 학교 발전 프로그램(Missouri School Improvement Program)의 학교생활만족도 검사 도구를 참고로 한 이영옥(2010)의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학교생활만족도는 학습활동,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 환경, 그리고 학교행사 및 특별활동의 5개 영역으로 각각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리고 설문조사방식은 문화변용 유형을 분석하기 위한 23개 문항과 30개의 학교생활만족도에 관한 문항에 대해서는 각각 5점 척도¹²⁾ 방식이며, 각 영역별 항목 간 내적일관성은 Cronbach's α 값으로 검증하였다.

2) 분석대상자의 속성

북한이탈 국내이주 청소년의 문화변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 이들의 속성도 주된 요인이다(김종국, 2007). 이에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초등학교생의 속성을 살펴보면 <표 1>와 같다. 먼저 성비는 61.3(여학생 100명당 남학생 61.3명)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4월 전국 북한이탈 국내이주 초등학교생들 성비(104.0)와 당시의 대구 경북지역의 성비 89.7보다도 낮다. 이들의 학년별 분포는 중학년(3~4학년)의 비율이

표 1. 대구·경북지역 탈북초등학생의 인구·사회적 속성
(단위: no, %)

인구·사회적 속성		빈도(%)
성별	남자	19(38.0%)
	여자	31(62.0%)
연령	6~7세	7(14.0%)
	8~9세	14(28.0%)
	10~11세	18(36.0%)
	12세 이상	11(22.0%)
학년	저학년	14(28.0%)
	중학년	19(38.0%)
	고학년	17(34.0%)
출생지역	북한	15(30.0%)
	중국 및 제3국	30(60.0%)
	남한	5(10.0%)
거주지	대구시	22(44.0%)
	경상북도	28(56.0%)
국내 거주기간	1년 미만	4(8.0%)
	1~3년	11(22.0%)
	3~5년	15(30.0%)
	5년 이상	15(30.0%)
	무응답	5(10.0%)
동급생과의 연령차	없음	31(62.0%)
	있음	19(38.0%)
가족구성	부모와 거주	30(60.0%)
	편부모와 거주	17(34.0%)
	기타	3(6.0%)
합 계		52(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

38.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고학년(5~6학년)이 34.0%, 그리고 저학년(1~2학년)이 2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2010년 4월의 전국 단위의 탈북초등학생들의 학년별 분포와 비교하면 중학년의 경우는 전국(42.4%)보다 낮은 반면에 고학년(27.6%)과 저학년(20.0%)보다는 높았다. 출생지의 경우에는 중국 및 제3국에서 태어난 비율이 60.0%로 가장 높고, 북한(30.0%), 국내(10.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출생지는 학년별 비율과 사회 및 학교생활 적응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 된다¹³⁾. 그리고 동급생과 연령차가 있는

학생의 비율이 38.0%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나 중국 및 제3국에서 태어난 학생의 경우, 탈북에서 국내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언어 및 지적수준의 차이 등의 이유로 학년을 낮추어서 배정받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거주기간에 있어서는 1년 미만이 8.0%, 1~3년 22.0%, 3~5년 30.0%, 그리고 5년 이상이 30.0%로 거주기간이 길수록 그 비중이 큰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가족구성을 보면 친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학생의 비율은 60.0%이고, 친부모 중 어느 한사람, 즉 편부모와 생활하는 경우도 34.0%를 차지하여, 약 94% 정도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나머지 6.0%는 부모가 아닌 조부모, 친척과 생활하거나 집단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절반 정도가 가족과 거주를 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3. 문화변용 유형과 인구·사회적 속성과의 관계

Berry(1997)는 이주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화와 정체감을 유지하려는 성향과 이주사회의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고 참여하려는 성향의 두 차원을 활용하여, 문화변용을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분리(separ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즉 기존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주류사회의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계를 유지하려는 이주자는 통합형, 주류사회의 문화에 관계를 하면서 기존의 고유문화적 정체성을 포기하는 이주자를 동화형으로, 반면에 기존의 문화만을 고수하고 새로운 문화를 거부하는 이주자를 분리형, 주류사회와의 관계도 유지하지 않으면서 이주자의 기존문화를 유지하려는 노력도 없어 양쪽 문화와 모두 단절된 경우를 주변화형으로 분류된다. 이 중에서 통합형을 Berry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가장 바람직한 문화변용 유형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변용 유형을 활용한 북한이탈 국내이주자들의 적응에 대한 연구로는 독고순(2001), 이애란(2003),

홍순혜·이숙영(2008), 박영숙(2012)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구의 대부분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초등학생의 문화변용의 유형과 그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초등학생의 속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 이에 본 장에서는 먼저 북한이탈 국내이주 초등학생의 문화변용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 나아가서 문화변용유형과 인구·사회적 속성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1) 문화변용 유형

남한문화지향성(12개)와 북한문화유지(11개)의 전체 23개 문항별 5점 척도 점수의 총점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남한문화지향성 총점과 북한문화유지 총점과의 조합으로 4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남한문화지향성 총점과 북한문화유지 총점이 북한문화유지의 평균점수(31.90점)와 남한문화지향성 평균점수(42.98점)보다 모두 높은 경우는 ‘통합형’, 북한문화유지 점수는 평균보다 낮지만 남한문화지향성 점수가 평균보다 높은 경우는 ‘동화형’, 반대로 북한문화유지 점수는 평균보다 높지만 남한문화 지향성 점수가 평균보다 낮은 경우는 ‘분리형’, 마지막으로 북한문화유지와 남한문화 지향성 점수가 모두 평균보다 낮은 경우는 ‘주변화형’으로 구분하였다. 남한문화지향성의 평균점수 이상의 초등학생 비율이 58.0%로 평균점수 미만인 초등학생 비율(42.0%)보다 높았다. 반면에 북한문화유지의 평균점수 이상인 학생의 비율은 58.0%로 평균점수 미만인 학생들의 비율(42.0%)보다 높았다. 그리고 남한문화지향성 12개 문항의 Cronbach's α 값¹⁴⁾은 0.808이고, 북한문화유지에 관련된 11개 문항의 Cronbach's α 값이 0.849로 ‘남한문화 수용 정도’와 ‘북한문화 유지 정도’의 신뢰도는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이상의 유형분류 기준에 기초한 대구·경북 북한이탈 초등학생의 문화변용 유형별 비중은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동화형’과 ‘분리형’이 각각 30.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통합형’이 28.0%(14명)이고 ‘주변화형’은 12.0%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문화라고 할 수 있는 북한 문화와 현재의 한국문화 모두에 대한 적응도가 상

표 2. 대구·경북 북한이탈 초등학생의 문화변용 유형별 비율

(단위: no, %)

문화변용유형	빈도(%)
통합형	14(28.0%)
동화형	15(30.0%)
분리형	15(30.0%)
주변화	6(12.0%)
계	50(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

대적으로 높지 않은 저연령층의 북한이탈 국내이주 초등학생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문화에 접하면서 북한문화의 정체성을 포기하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한편으로는 남한 문화를 거부하려는 분리형과 주변화형의 비율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2%를 차지한다는 것은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문화변용 유형과 인구·사회적 속성과의 관계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초등학생의 문화변용 유형과 그들의 인구·사회적 속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들의 인구·사회적 속성 8개 중에서 문화변용 유형과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연령, 출생지 그리고 국내거주기간의 3개이다¹⁵⁾.

먼저 문화변용 유형과 연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연령 계층별 가장 비율이 높은 유형과 그 비율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6~7세의 경우에는 통합형이 71.4%, 8~9세는 분리형이 50.0%, 10세~11세는 동화형이 50.0% 그리고 12세 이상도 분리형이 45.5%로 가장 높다. 이러한 결과는 6~7세 어린 학생은 초등학교 1학년생들로 입학 전까지 가정에서 주로 북한문화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생활을 하다가 입학과 동시에 가정 외의 사회화에 노출되면서 남한문화를 본격적으로 경험하게 된 계층이다. 따라서 이들은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초기에는 이질 문화에 대해 호감을 갖고 좋은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다(Nash, 1991)는 일반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8~9세의 경우는 북한문화를 유

표 3. 북한이탈 국내이주 초등학생의 문화변용 유형과 인구·사회적 특성

(단위: no, %)

속성	유형	통합형		동화형		분리형		주변화형		계		χ^2
		no	%	no	%	no	%	no	%	no	%	
성별	남학생	5	26.3%	6	31.6%	5	26.3%	3	15.8%	19	100.0%	0.562
	여학생	9	29.0%	9	29.0%	10	32.3%	3	9.7%	31	100.0%	
나이	6~7세	5	71.4%	0	0.0%	1	14.3%	1	14.3%	7	100.0%	19.804**
	8~9세	1	7.1%	5	35.7%	7	50.0%	1	7.1%	14	100.0%	
	10~11세	4	22.0%	9	50.0%	2	11.1%	3	16.7%	18	100.0%	
	12세 이상	4	36.4%	1	9.1%	5	45.5%	1	9.1%	11	100.0%	
학년	저학년	5	35.7%	2	14.3%	6	42.9%	1	7.1%	14	100.0%	9.921
	중학년	4	21.1%	9	47.4%	2	10.5%	4	21.1%	19	100.0%	
	고학년	5	29.4%	4	23.5%	7	41.2%	1	29.4%	17	100.0%	
출생 지역	북한	2	13.3%	2	13.3%	8	53.3%	3	20.0%	15	100.0%	12.000**
	중국 외	10	33.3%	11	36.7%	7	23.3%	2	6.7%	30	100.0%	
	남한	2	40.0%	2	40.0%	0	0.0%	1	20.0%	5	100.0%	
거주지	대구시	5	22.7%	8	36.4%	5	22.7%	4	18.2%	22	100.0%	2.864
	경상북도	9	32.1%	7	25.0%	10	35.7%	2	7.1%	28	100.0%	
남한 거주 기간	1년 미만	0	0.0%	0	0.0%	4	100.0%	0	0.0%	4	100.0%	24.747**
	1~3년	2	18.2%	1	9.1%	7	63.6%	1	9.1%	11	100.0%	
	3~5년	5	33.3%	5	33.3%	2	13.3%	3	20.0%	15	100.0%	
	5년 이상	5	33.3%	8	53.3%	1	6.7%	1	6.7%	15	100.0%	
	무응답	2	40.0%	1	20.0%	1	20.0%	1	20.0%	5	100.0%	
친구들과 나이 차이	없음	9	29.0%	10	32.3%	8	25.8%	4	12.9%	31	100.0%	0.703
	많음	5	26.3%	5	26.3%	7	36.8%	2	10.5%	19	100.0%	
가족 구성	양부모	7	23.3%	11	36.7%	7	23.3%	5	16.7%	30	100.0%	8.688
	편부모	6	35.3%	2	11.8%	8	47.1%	1	5.9%	17	100.0%	
	기타	1	33.3%	2	66.7%	0	0.0%	0	0.0%	3	100.0%	
합 계		14	58.0%	15	30.0%	15	30.0%	6	12.0%	50	100.0%	

*p<0.10, **p<0.05, ***p<0.01

자료 : 설문조사 결과

지하려는 경향이 강한 분리형의 비율(50.0%)이 가장 높지만 오히려 남한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동화형도 35.7%를 차지하여 대조적인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10~11세의 경우에는 동화형의 비율이 50.0%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나이가 들고 고학년이 되면서 학교생활을 통한 남한문화에 대한 경험이 늘어날수록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12세 이상은 오히려 그 이전 연령층의 일반적 경향성과는 반대로 분리

형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통합형(36.4%)인 반면에 동화형은 단지 9.1%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 연령층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의식이 강해지는 사춘기라는 일반적 특성으로 분리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고 이해될 수 있다. 이 외에도 북한이탈 국내이주 초등학생이라는 특성상 나이는 많지만 한국에 이주한 기간이 짧아 바로 고학년에 배정을 받게 되어 학업 부담의 증대에 따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남한의 교육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김미숙의 연구(2004)에 의하면 북한이탈 국내이주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학업성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문화변용 유형과 출생지역과의 관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남한이나 중국 및 제3국에서 태어난 학생들의 경우에는 통합형과 동화형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에 북한에서 태어난 학생의 경우에는 분리형의 비율(53.3%)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주변화형(20.0%)으로 매우 대조적인 특성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태어난 학생의 경우에는 통합형과 동화형의 비율이 각각 40%로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반면에 주변화형은 20% 그리고 분리형에 해당하는 학생은 전무하였다. 중국 및 제3국에서 태어난 학생의 경우에는 동화형의 비율(36.7%)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통합형(33.3%), 분리형(23.3%), 주변화형(6.7%)의 순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한국과 중국 및 제3국에서 태어난 학생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북한문화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남한문화에 비교적 잘 적응하거나 북한문화의 정체성을 포기하려는 경향이 강한 반면에 북한에서 태어난 학생의 경우는 기존의 북한문화만을 고수하고 한국 문화를 거부하거나 남북한 양측 문화를 모두 거부하려는 경향이 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북한에서 태어난 학생의 경우는 새로운 남한문화에 ‘동화’나 ‘통합’되기보다 기존의 북한문화를 지키려는 의식과 한국사회로부터의 소외의식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이들은 북한을 탈출하여 제3국 등을 거쳐 국내로 이주하는 과정¹⁶⁾에서 불안정한 신분으로 숨어 지내야 하는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질문화에 대한 호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과 한국과 중국 및 제3국에서 태어난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고 고학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급생에 비해 나이가 많고 학업의 공백이 컸으므로 교우관계와 학업의 스트레스가 심한 점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문화변용 유형과 국내 거주기간과의 관계를 보면, 국내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통합형 및 동화형의 비율은 늘어나는 반면에 분리형은 그 반대 경향이 아주 뚜렷한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모든 초등학생이 한국 문화를 거부하는 분리형에 속한다. 그러나 국내 거

주기간이 늘어나면서 점차 분리형의 비율은 감소하여 5년 이상인 학생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주변화형과 동시에 10% 미만(6.7%)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에 통합형 및 동화형은 국내 이주 1년 이후부터 급격히 늘어나서 1년 이상 3년 미만의 시기에는 통합형의 비율이, 3~5년의 경우에는 동화형의 비율이 가장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5년 이상의 경우에는 동화형이 절반이상(53.3%)을 차지하여 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이주 초기에는 한국 문화를 거부하는 분리형에서 거주기간이 1년을 넘어서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점차 한국 문화를 수용하는 통합형 및 동화형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타 문화지역으로의 이주자들은 새로운 문화에 무조건적으로 동조하던 태도를 보이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의심과 적대감을 가지게 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전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 양쪽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면서 중국적으로는 통합형으로 전환하게 된다는 연구(Atkinson, 2003; 금명자 등, 2004)와는 차별성을 가진다. 그 이유는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기간과 경로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초등학생이라는 연구대상의 특수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특수성은 이주 초기의 나이가 어린 아동의 문화변용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사춘기 이후의 문화변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4. 학교생활 만족도와 문화변용

이상에서 북한이탈 국내이주 초등학생의 문화변용 유형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문화변용의 특성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서의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정의·성지연, 2012b; 홍순혜·이숙영, 2010). 특히 이들 중에서 북한 및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 태어난 1.5세대는 국내로 이주하여 8주간의 초기 적응교육을 이수한 후 주소지 인근의 학교에 배정받게 된다. 따라서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이들 1.5세대들은 무엇보다 남북한 간의 학교교육 제도 및 환경뿐만 아니라 학

습수준의 차이 그리고 탈북 후 국내 입국까지의 학업 공백 등으로 학교생활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원자혜, 2012).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각 영역별로 살펴보고, 영역에 있어서 문화변용 유형간의 차별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학교생활만족도의 분석방법에서는, 학교생활만족도를 학습활동,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환경과 학교행사 및 특별활동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6개 문항의 총 30개 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학교생활만족도의 5개 영역별 6개 항목의 내적 일관성에 대한 Cronbach's α 의 값은 0.68에서 0.90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이들의 전체 문항의 평균값은 3.92이고, 만족도의 각 그룹별 비중은 보통(3.0 이상~4.0 미만)이 전체의 52.0%를 차지하고 만족(4.0 이상~5.0)이 42.9% 그리고 불만족(1.0 이상~3.0 미만)이 6.0%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각 영역별 5점 척도의 평균값을 보면, 전체평균값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영역은 교사와의 관계(4.32)와 학교환경(4.08)이고, 그 다음은 교우관계, 학교행사 및 특별활동영역이며, 가장 만족도가 낮은 영역은 학습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이러한 결과는 학과성적을 중시하는 남한의 교육현실과 그들의 동급생과의 학력차이 그리고 일상생활용어의 차이에 따른 소통에 대한 스트레스 등은 학교생활만족도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에 기존의 북한 체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권위적인 교사의 태도와 양호한 학교환경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초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와 문화변용 유형 간의 관계

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학교생활 만족도의 5개 영역별로 문화변용 유형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ANOVA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교생활만족도 5개 영역 중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학습활동, 교우관계 그리고 만족도가 가장 높은 교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문화변용 유형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 영역별 문화변용 유형의 차이는 <표 5>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먼저 학교생활만족도의 학습활동영역에 있어서는 통합형은 6개 문항의 5점 척도 평균값이 4.01로 만족도가 가장 높고, 다음은 동화형(3.97), 주변형(3.17)의 순이고 분리형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즉 탈북 후 국내에 이주과정에서 남한문화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성향이 강한 초등학생이 한국문화를 거부 혹은 단절하려는 계층보다 학습활동에 대하여 만족하는 경향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체로 만족하는 2개 유형 중에서는 기존문화를 포기하기 보다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남한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학생의 경우가 오히려 만족도가 높았다. 그리고 교우관계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에는 주변형(4.25)과 통합형(4.17) 그리고 동화형(3.98)은 대체로 만족하는 편인 반면에 분리형은 보통수준(3.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주변화형과 분리형에 속한 학생들은 통합형이나 동화형에 비해 교우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기존의 연구(김미숙, 2004)와는 차이가 있었다. 그 이유는 기존의 북한 문화에 대한 정체성도 약한 동시에 국내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기회도 많지 않아 두 문화와 동시에 단절된 주변화유형의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

표 4. 학교생활 만족도의 영역별 문항수, 내적일관성과 평균값

하위영역	문항수	Cronbach's α	평균값
학습활동	6	0.87	3.69
교우관계	6	0.89	3.89
교사와의 관계	6	0.90	4.32
학교환경	6	0.68	4.08
학교행사 및 특별활동	6	0.73	3.86

자료: 설문조사 결과

주: 평균값은 학교생활만족도의 영역별 6개 항목의 5점 척도 값의 평균임

표 5. 학교생활 만족도의 영역별 문화변용 유형간 차이

영역	문화변용유형	평균값	표준편차	F	Sig.
학습활동	통합	4.01	0.63	6.613	.001
	동화	3.97	0.58		
	분리	3.06	0.71		
	주변	3.86	0.83		
교우관계	통합	4.17	0.64	3.707	.018
	동화	3.98	0.77		
	분리	3.40	0.67		
	주변	4.25	0.77		
교사와의 관계	통합	4.60	0.39	4.872	.005
	동화	4.49	0.41		
	분리	3.86	0.72		
	주변	4.42	0.83		
학교환경	통합	4.17	0.63	1.089	.363
	동화	4.16	0.65		
	분리	3.82	0.62		
	주변	4.22	0.61		
학교행사 및 특별활동	통합	4.07	0.55	1.532	.219
	동화	3.92	0.73		
	분리	3.58	0.59		
	주변	3.95	0.75		

자료 : 설문조사 결과

주 : 평균값은 학교생활만족도의 영역별 6개 항목의 5점 척도 값의 평균임

생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교우관계에 있어서 만족하는 정도가 큰 경향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교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통합형(4.60), 동화형(4.49), 주변형(4.42)은 대체로 만족하는 수준인 반면에 분리형(3.86)은 보통수준이었다.

5. 맺음말

북한이탈 국내이주 청소년들은 청소년 특유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갈등과 혼란 외에 상이한 문화에 대한 적응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청소년 중에서 초등학생은 그 비중이나 향후 남한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계층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소외되었던 비수도권의 대구·경북지역에 거

주하는 북한이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문화변용과 학교생활 만족도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초등학생의 속성에서는 전국 혹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차별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문화변용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문화변용의 지역적 차별성의 핵심적 동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북한이탈 국내이주 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둘째, 문화변용 유형과 인구·사회적 속성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기존 문화와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정도가 타 연령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초등학생의 특성이 잘 나타났다. 이들은 북한문화

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가진 자발적 이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한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한국문화에 접하면서 북한문화의 정체성을 포기하려는 유형이 한국 문화를 거부하려는 유형보다 그 비율이 약간 높지만 큰 차이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나이가 들고 학교생활에 익숙할수록 남한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경향이 강한 반면에 북한에서 태어난 학생의 경우에는 북한 문화뿐만 아니라 남한 문화도 거부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타 문화지역으로의 이주자들은 새로운 문화에 무조건적으로 동조하던 태도를 보이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의심과 적대감을 가지게 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전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 양쪽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면서 중국적으로는 통합형으로 전환하게 된다는 일반론과는 차별성을 가진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문화변용의 일반화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학교생활만족도는 대체로 만족하는 수준이며, 영역별로는 학습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반면에 교사와의 관계와 학교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다. 그리고 학교생활만족도와 문화변용 유형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새로운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유형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아, 양자 간에는 깊은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남한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한 이들의 문화변용에 있어서 중요한 환경이 학교생활이기 때문에 학과성적 위주의 학습활동보다는 문화변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 및 교우관계의 개선을 통하여 학교생활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분리형과 주변화형의 경우, 단기간의 교육을 통하여 이들이 남한문화를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긴 안목에서 직접적인 삶의 경험을 통해 적응할 수 있는 세심한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청소년기의 자신의 정체성 정립에 대한 갈등과 혼란 외에 남한문화에 대한 적응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 국내이주 청소년에 대한 기존의 한국문화적응 지원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이 요구된다. 즉 기존의 이들 청소년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획일적인 성격이

강한 교육위주 단기적인 교육정책에서 탈피하여, 지역적·계층별·속성별 수요를 반영한 사회적 지지 (social support)를 강화하는 문화변용 차원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주

- 1) 예를 들면, 김미숙의 연구(2004)는 초등학교 1~4학년 학생을 제외한 5~6학년 초등학교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 2)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고 할지라도 실제 분석대상은 서울 혹은 수도권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김종국, 2007)가 대부분이다.
- 3) 비수도권의 북한이탈 국내이주자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것은 이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6월 현재 북한이탈 국내이주자들의 64.4%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이들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취업기회와 양호한 지원체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비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지방거주 장려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비수도권 거주자는 2014년에는 2007년에 비해 4.3%증가한 35.6%를 차지하고 있다(박순호, 2014).
- 4) 북한이탈 국내이주 초등학교생들은 남한사회에서의 사회화 과정에서 초기의 타율적 태도와 집단주의 생활양식에서 점차 자율적이고 개인주의 생활양식으로 바뀌어가는 것으로 밝혀졌다.
- 5) 북한이탈 국내이주 초등학교생들의 일상생활 만족도는 학년, 출생지, 거주지, 남한거주기간 및 가족구성과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일상생활 만족도가 높은 그룹은 중국 및 제3국에서 태어난 중학년과 고학년에 재학하는 학생인데 반하여 북한에서 출생한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고 국내 거주기간이 긴 학생들일수록 불만족 비율이 높았다.
- 6) 현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 국내거주 학생은 그들 자신보다는 부모나 보호자의 이주 의사결정에 동참한 동반 이주자인 이주 1.5세와 남한에서 태어난 이주 2세들로, 소위 '새터민 청소년'으로 불리고 있다.
- 7) 2014년 4월 현재 전국의 북한이탈 국내이주 초등학교생은 1,128명이며, 그 중에서 대구·경북 거주 초등학교생은 총 79명으로 전국의 7.0%를 차지한다.
- 8) 본 설문조사에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정현숙·조수정 교사의 도움이 있었다. 이에 감사한다.
- 9) 초등학교생의 속성항목은 성별, 연령, 학년, 출생지, 거주지, 국내 거주기간, 동급생과의 연령차 그리고 가족구성의 8개이다.
- 10) 금명자 등(2004)은 Ahn(1999)이 아시아계 미국인의 민족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대학생 210명을 대상으로 개발한 KAEIS(Korean-

- American Ethnic Identity Scale)를 번역하여 북한이탈 국내이주 청소년의 문화적응연구에 사용하였다. 금명자 등(2004)의 연구에서는 Ahn의 50개 문항 중에서 북한이탈 청소년을 교육하는 교사의 자문과 내적 타당도 요인 분석을 통하여 총 3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남한 문화에 대한 관심과 남한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려는 남한문화지향성에 관한 20개 문항과 북한문화유지에 관련된 1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11) 본 연구에서는 Ahn의 50개 문항 중에서 북한이탈 초등학생 및 교사와의 면담조사를 통하여 남한문화지향성에 관한 12개와 북한문화유지에 관련된 11개 등 총 23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 12) 각 문항별로 자신이 생각하기에 전혀 아니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측정하였다.
 - 13) 북한에서 태어난 경우는 상대적으로 고학년이고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큰 반면에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나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저학년으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 14) Cronbach's α 는 설문문의 각 영역별 문항 간의 내적 일관성을 검정하는 지수로, 그 수식은

$$\alpha = \left(\frac{k}{k-1}\right) \left(1 - \frac{\sum_{i=1}^k \sigma_i^2}{\sigma_t^2}\right)$$
 (k: 항목 수, α_i^2 : 각 항목의 분산, α_t^2 : 총 분산)이다. Cronbach's α 값은 0~1의 값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탐색적 연구의 경우에는 0.60, 기초연구의 경우에는 0.80이상이면 충분한 의미가 있다(정충영·최이규, 2004).
 - 15) 이러한 결과는 문화변용 유형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속성으로 교육형태, 국내 거주기간과 동거형태를 제시한 금명자 등(2004)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그 차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첫째, 교육 형태에서 초등·중등 및 대학교, 대안학교, 하나원 등 다양하지 않고 단지 일반 공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 한정되며, 동거형태도 단지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족과의 동거라는 지역적 특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 16) 김종국(2007)의 연구에 의하면 북한에서 태어나 중국 및 제3국을 걸쳐 국내로 이주하는 데는 걸리는 기간은 평균 28.6개월이다.

문헌

강희석, 2007, 새터민 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체계와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교육부, 2015, 2015년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계획 발표, 보도자료, 3월 5일.
 금명자·권해수·이희우, 2004, 탈북청소년의 문화

적응 과정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95-308.
 김미숙, 2004, 북한이탈학생의 학교적응 실태 분석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윤나, 2008, 북한이탈청소년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적응유연성에 관한 통합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은경, 2000, 북한이탈주민 적응교육 프로그램 개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종국, 2007, 새터민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주석, 2005, 북한이탈아동의 남한 초등학교 생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독고순, 2001, 탈북 주민의 적응 유형 연구,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 5, 24-40.
 박석동, 2014, 북한이탈가정 초등학생의 한국사회 초기 사회화 과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박순호, 2013, 한국의 국제결혼 베트남 이주여성의 일상생활 만족도 분석, 초등교육연구논총, 29(2), 49-69.
 박순호, 2014, 대구·경북지역 북한이탈 초등학생의 일상생활 만족도 분석, 초등교육연구논총, 30(2), 29-46.
 박순호·최정수, 2001, 테마파크 에버랜드의 이용자 행태와 만족도, 관광지리학, 114, 125-150.
 박영숙, 2012, 북한이탈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문화변용정체성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3(2), 144-154.
 박윤숙·윤인지, 2007,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특성과 남한사회 적응과의 관계, 한국사회학, 41(1), 124-155.
 박정의·성지연, 2012a, 재미한인의 문화변용전략과 미디어 콘텐츠,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2), 479-488.
 박정의·성지연, 2012b, 재미한인의 삶의 만족감과 문화변용,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19, 7-37.
 원자혜, 2012, 탈북학생의 실태와 학교 적응에 미치는 요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동현, 2011, 새터민 청소년의 사회적지지 및 자

- 이준중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영, 1999, 탈북자의 정신건강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모색, 정신보건과사회사업, 8(1), 161-176.
- 이선화, 2006, 북한이탈청소년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학업성취 방안 연구: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의 '하누리 교실' 사례연구,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애란, 2003, 남한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식생활 행동에 관한 연구: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심리적 문화적응 전략유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옥, 2010, 발달단계 측면에서 본 일상적 스트레스가 아동·청소년이 지각한 환경과 심리적 문제에 미치는 변인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창호, 2001, 탈북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사회사업적 고찰,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영주, 2005, 북한 이탈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병호·양계민·이향규·임후남·황순택, 2007, 새터민 청소년: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한 교육방안 마련 연구, 경기도 교육청.
- 정애리·유순화, 2014, 북한이탈청소년이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경험하는 인식의 변화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다문화교육연구, 7(1), 51-75.
- 정충영·최이규, 2004, SPSSWIN을 이용한 통계분석: 한글용 SPSS 10.0, 서울: 무역경영사.
- 통일부, 통일백서, 1996, 2015.
- 한만길·윤중혁·이향규·김일혁, 2009, 탈북학생의 교육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홍순혜·이숙영, 2008, 청소년 새터민의 문화변용과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5(5), 121-144.
- Ahn, H. S., 1999, Juggling two worlds: ethnic identity of Korean-American college students, Doctori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 Atkinson, D. 2003, Counseling American minorities: a cross-cultural perspective, 6th edition, Boston: McGraw Hill.
- Berry, J.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1), 5-34.
- Berry, J.W., Poortinga, Y.H., Segall, M.H., Dasen, P.R., 2002, Cross-cultural psychology: research and applic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ash, D., 1991, The course of sojourner adaptation: a new test of the U-curve hypothesis, Human Organization, 50(3), 283-286.
- Redfield, R., Rinton, R, and Herskovists, J, 1936, Memorandum on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38, 149-152.
- 교신 : 박순호, 705-715,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19, 대구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이메일: shpark@dnue.ac.kr, 전화: 053-620-1323)
- Correspondence : Soon-Ho Park,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19 Jungang-daero, Nam-gu, Daegu 705-715, Korea(e-mail: shpark@dnue.ac.kr, phone: +82-53-620-1323)
- (접수: 2015.12.29, 수정: 2016.02.20, 채택: 2016.02.25)